

수경사 아동학대 여부 논란 확산

교계단체·종회의원, 보도 공정성에 의문 제기 아동단체 “명백한 아동학대” 검찰 수사 비판

수경사 아동 학대 논란이 계속 번지고 있다. 아동매매와 학대 여부를 놓고 불교계 단체들과 아동단체들이 상반된 의견을 제시하며 다투고 있고 이에따라 여기에 조계종 일부 종회의원들도 SBS 보도의 공정성에 의문을 표시하는 등 파장이 계속되고 있다.

수경사 언론보도 불교대책위원회(상임대표 혜종, 이하 수경사 불교 대책위는 7월 18일 국가인권위에 수경사 아동학대 여부 조사를 의뢰했다. 수경사 불교 대책위는 국가인권위에 △학대 내용의 사실여부 △인

신매매 여부 △아이들 목욕문제 △인론 최초제보자 신원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 수경사 대책위는 이와 함께 위장 봉사자의 몰래카메라 촬영이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는 것인지와 아이들을 불교단체가 다시 맡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판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수경사 불교 대책위 공동대표 진관 스님은 “의혹으로 제기되고 있는 몇 가지 사안에 대한 조사를 의뢰했다”며 “국가인권위 조사를 지켜본 뒤 진상규명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관 스님 등이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있다. 사진=유철주 기자

같은 날 아동 단체 등으로 구성된 수경사 아동학대 대책위원회(위원장 홍강의, 이하 수경사 대책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수경사 사건은 명백한 아동학대 사건”이라며 “검찰과

경찰이 수경사 학대사건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경사 대책위는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양육 및 치료를 소홀

히 하는 방임행위를 금지한다는 조항이 아동복지법에 명백히 있다”며 검찰을 비난했다.

수경사 대책위 이명숙 변호사는 보건복지부와 법무부 등에도 △아동학대 인식 교육 제고 △전문가 조언 체계 마련 △경의 아동학대 전담 부서 신설 △아동학대에 대한 구체적 정황과 수사지침 마련 등을 요구했다.

이에 앞서 7월 15일 일련 스님을 비롯한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28명은 수경사 문제와 관련, 성명을 발표했다. 종회의원 스님들은 “수경사 스님은 부모로부터 버려진 아이들을 원력과 자비심으로 보호하고 있었을 뿐”이라며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내용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스님들은 방송이 “내용의 사실과 주장이 혼동되고 있으며, 양육방식과 아동학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자의적인 유도질문과 화면조작 등이 드러났다”며 은평경찰서와 검찰의 공정한 수사, SBS의 해명을 촉

부처님 가르침 영어로 배워요 전국 사찰서 열리는 영어법회·여름캠프

“내 아이가 영어와 친숙해지고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불교에 접어들도록 만들고 싶다” 여름 방학을 맞아 부처님의 가르침을 영어로 배울 수 있는 법회가 열린다.

서울 봉은사주지 원혜는 7월 25일~8월 12일 영어교실을 연다. 대상은 초·중학생이며 초등부에서는 영어연극과 지혜 동화 등을 통해 영어와 친숙해지도록 유도한다. 중등부에서는 자비수관, 영어회화와 문법 등을 시청각 교재로 학습한다. 또 서유기를 포함한 다채로운 불교 설화와 노래 등을 영어로 배운다. (02) 511-6070 대전 자광사(주지 정아는)는 매주 일요일마다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불교영어학교를 열고 있다. 불교영어학교는 사찰 내에서 원어민 강사와 예불, 포행, 산행 등을 함께 하며 영어에 대한 두려움을 없앤다. (042)822-9220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홍승희)은 연중 상시로 어린이 영어법회를 열고 있다. 매주 월, 수요일 1시간가량 진흥원 불교문화센터에서 진행된다. 또한 7월 25일~30일 과산 다보수련원에서 단기 영어캠프 ‘편안편 잉글리쉬

캠프’를 열린다. 진흥원과 E·C WORLD가 공동 주최하는 ‘편안편 잉글리쉬 캠프’는 여름방학을 맞이한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2까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최한다. 캠프에 참가한 청소년들은 매일 8시간의 영어수업을 받으며, 24시간 원어민 강사와 함께 생활한다. 또 불교설화와 부처님의 가르침을 영어로 배우는 시간을 통해 자연스럽게 심성교육도 받는다. (043)833-7789 www.dabopia.net

이밖에도 화계사 국제선원은 매주 일요일 ‘영어참선법회’를 마련하고 있다. 외국인 스님들이 참선지도와 법문을 영어로 진행하고 있다. 또 매주 일요일 오전에는 초삼자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영어회화강좌를, 오후에는 현각 스님의 ‘영어회화강좌’를 진행하고 있다. (02)900-4326

도 김포 용화사는 매주 일요일 오전 초등학생과 중학생 15명을 대상으로 ‘불교영어법회’를 열고 있다. 3개월 코스로 진행되는 불교영어법회는 예불을 영어로 본다. (031)984-3234

이은비 기자

원불교, 군부대서 종교활동

육군부사관학교에 교당 건립...논란 일듯

육군 부사관학교와 군학협정을 맺고 부대 내에서 군사학과를 운영하고 있는 원불교 종립대학 원광대가 7월 3일 군교당을 개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개원한 것으로 알려진 교당은 원광대 군사학과 학생들의 강의실로 허기를 받은 후 일원상 등 원불교 상징물들을 설치하는 편법을 동원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군대내 종교시설 이외 지역에 교당을 건립한 것은 일종의 규정을 위

반이다. 그러나 부사관학교장이 지난 3월 원불교의 종교 활동을 인정한 만큼 이 시설물의 철거를 요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그동안 불교 개신교 가톨릭 등 3대 종교 이외의 소수종교의 군내 종교 활동이 사실상 제한돼 있는 현실에서 국방부가 원불교 등 신종교들의 본격적인 군 포교활동을 묵인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낳고 있다. 강유신 기자

‘연꽃과 아시아 문화축제’ 워싱턴서 열려

연꽃에 깃든 아시아 문화의 아름다움을 미국 사회에 알리기 위한 ‘연꽃과 아시아 문화축제’가 워싱턴 DC 연방수생식물원에서 열렸다.

미주 현대불교(발행인 김형근)와 연방수생식물원이 공동 주최한 이날 행사에 참석한 라오스 태국 스리랑카 티베트 캄보디아 스님들과 불자, 백인 불자를 비롯한 5천여 미국인들은 독특한 한국불교와 아시아 문화를 체험 느끼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뉴욕 정명사 무용 스님, 뉴저지 원적사 성오 스님, 보리사 원영 스님 등을 비롯한



아시아 문화축제에서 종이접기 연꽃을 접고 있는 외국인들의 모습.

한국인 불자 200여 명이 동참했다. 이날 행사는 미국 언론의 관심을 모아 <워싱턴포스트>지가 주말 섹션에 행사를 상세히 보도하기도 했다. 강유신 기자



동국대 일산불교병원이 6월 29일 개원한 데 이어 한방병원(원장 이원철·인턴비 15명)이 7월 18일 개원했다. 이에 따라 본격적인 양·한방 협진의 초대형 불교종합병원이 완성돼, 지역주민은 물론 불자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한방병원은 한방내과, 한방신경정신과, 한방안이비인후과, 한방여성의학과, 한방소아과, 한방재활의학과, 사상체질과, 침구과 등 총 8개과를 갖추고 있다. 뇌졸중, 보양, 소화기, 순환기, 합병, 부인병, 소아비만, 알레르기 등 한방 특화 치료가 가능한 전문센터가 양·한방 협진으로 가동되는 것이 특징이다. (02)1577-7000 조용수 기자

해외포교잡지 ‘Clear Mind’ 창간

한국 불교를 세계에 알리고, 해외 포교에 앞장서고 있는 한국 사찰 소식을 전하는 월간지 <Clear Mind> 창간호가 나왔다.

한국불교국제네트워크가 펴내는 <Clear Mind>는 뉴욕사원연합회가 지난 2년 여간 발간한 월간 포교잡지 <뉴욕불교>의 제호를 바꿔 복간한 것으로 미산 스님(중앙승가대 교수)이 발행을, 하림 스님이 편집을 맡았다.

하림 스님은 창간사에서 “교포들에게는 한국의 문화와 불교를 알리고, 국내 불자들에게는 해외 불교의 현황을 알리는 길잡이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 잡지를 만들게 됐다”고 밝혔다.

창간호에서는 도반 스님(인드라망 생명공동체 상임대표)의 ‘생명평화의 길, 생명의 실상과 그 질서’와 미황사 템플스테이 소개, 한국불교계

대불련총동문대회 개최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총동문회(회장 삼기태)가 창립 42주년을 맞아 7월 30~31일 단양 구인사에서 총동문대회를 개최한다.

창년불자의 역할과 자비실천, 복지 사회건설 등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총동문대회는 ‘대불련인의 자비실천과 새로운 사회복지의 방향’ 세미나와 1차에 <반야심경> 사경, 한여름 밤의 산사음악회, 요가 태극권 강습, 경기명상 등 신행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강지연 기자

산중총회소집공고

종헌 제 105조 및 산중총회법 제 6조 2항 및 제 9조의 규정에 의거 영축총림 산중총회를 다음과 같이 소집하오니 산중총회 구성원에 해당되는 스님들은 중무 다망하시더라도 반드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시 및 장소

- 불기 2549(2005)년 8월 22일 (월요일) 14:00시
- 장소 : 통도사 설법전

2. 안건

- 영축총림 방장 후보자 선출의 건
- 영축총림 임회회칙 개정의 건
- 영축총림 임회회원 선출의 건

3. 구성원 자격

- 가. 비구계를 수지한지 5년을 경과한 제15교구 재적승
- 나. 임명일로부터 1년 경과한 분사 국장급 이상 종무원인 비구
- 다. 15교구 관할 말사 주지인 비구, 비구니
- 라. 비구계를 수지한지 5년 이상 경과한 자로 주민등록상 2년이상 15교구 본사에 거주하고 있는자

4. 거주승 신고기간

- 불기 2549(2005)년 8월 12일(금) ~ 8월 14일(일) 09:00 - 17:00시

5. 구성원명부 열람기간 및 장소

- 가. 기간 : 불기2549(2005)년 8월 17일(수) ~ 8월 19일(금) 09:00-17:00

나. 장소 : 통도사 종무소

6. 문의처

- 제 15교구 본사 통도사 종무소
- ☎ 055)382-7182

지난 1, 2차 산중총회는 구성원 미달로 무산된바 금번에는 재적 스님들의 다수 참석을 바랍니다.

불기 2549(2005)년 7월 26일

대한불교조계종 제 15교구 본사 통도사 주지 현문